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정_하 |
| 파견국가 | 프랑스 | 파견도시 | 릴(Lille) |
| 파견대학 | ISTC | 파견기간 | 2016/09~2017/05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저는 릴 카톨릭 대학 소속의 부속 대학인 ISTC라는 communication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cormontaigne역에 내려서 보병가 쪽으로 쪽 따라 올라가면 Istc 팻말이 달린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곳에서부터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릴 카톨릭 소속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병가 주변으로는 기숙사와, 여러 대학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비하면 작고 건물들이 단과대별로 완전히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느낌도 달라요. Istc는 비교적 신설된 단과대이기 때문에 건물 시설은 좋았어요. 단지 a동, b동 그리고 간혹 다른 건물도 이용하다보니 처음에는 강의실을 못 찾아서 헛갈릴 수도 있고, 강의실 변경도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니, 꼭 수업 전에 시간표가 붙어져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주로 영어 수업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수업과, 전반적인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배우고는 합니다. 저는 불어를 하지 못해서 전부 영어 수업만 수강을 했는데, 만약 불어를 할 줄 안다면, 더 질 좋고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p> |
| 2016-2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Visual Communication</p> <p>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너무 성의없이 수업을 하시고, 수업도 공지없이 안 오신다던가 과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수강했던 모든 교환학생 친구들이 안 좋아하던 과목이에요.</p> <p>Focus on Latin America</p> <p>정말 이론적으로 방대한 지식을 가르쳐주시던 교수님입니다. 한국과 비슷</p> |

하게 ppt보고 서술형으로 중간,기말고사 보는 수업입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작으시고 학생들이 건의사항을 내면 대부분 수용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무난했던 수업이었습니다.

Focus on Far East

교수님이 홍콩사람이신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만 잡고 넘어가는 수업이고, 그를 바탕으로 조별 과제를 합니다. 이 때에는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를 하나정해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팀 프로젝트로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험은 없었습니다.

French as a foreign language(ISTC)

말 그대로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교재는 taxi를 사용했고, 저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강했던 것이라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를 하실 수 있으나 수업은 모두 불어로 진행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받은 실력별로 2반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SPORT

조깅, 댄스, 등 선택해서 자유롭게 수강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1번정도 이루어지고, 출석체크나 시험은 없습니다.

Business News

가장 뽀뽀했던 수업입니다. 크게 매 학기마다 4개정도의 토픽을 선정해 그와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읽으며 공부하고 토론하며 또한 조별(2-3명)로 영어권에서 일어난 일들 중 하나의 토픽을 골라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때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셔서 박근혜와 비선실세, 그리고 촛불시위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찾아서 발표했었습니다.

(힐러리-트럼프/미국의대선방법/ 브렉시트) 비즈니스 뉴스 기말고사 문제 중에는 "미국대선과 브렉시트 중에 어떤 게 더 민주적인지 쓰시오" (각 시스템의 내용 적고, 관련된 지식과 의견적기)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Focus on Oceania

오세아니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교수님이 Ppt를 이용하여 수업하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를 하나 골라서 팀별(2명)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레포트와 기말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너무 좋으시고, 내용도 크게 지루하지 않았었습니다. 시험문제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택해서

| | |
|------------------------|--|
| | <p>쓸 수 있었는데, 뉴질랜드 호주 2차 세계대전 군대(Anzac) / 와이탕기조약 / stolen generation / 뉴질랜드 호주 정착 이주민 / 무루로아 레인보우 워리어 등과 관련되어서 나왔습니다.</p> <p>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프랑스학생들과도 같이 듣는 수업이라 교수님이 간혹가다 영어를 쓰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미리 커뮤니케이션이론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시험과 중간에 토론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에는 커뮤니케이션 모델 다섯 개 이름과 대략적 설명 / 트럼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말하고 프랑스 대선에서 쓰일 수 있을까 / 협상과 토론의 차이 / 논 버벌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서 나왔습니다.</p> <p>Ethics 중간레포트와 기말시험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어렵고, 윤리용어를 영어로 듣다보니 다소 생소할 수 있어서 평소에 윤리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Introduction to Great Britain (세미나) 영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영국의 문화와 발음 등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p> <p>Today's org. are multicultural (세미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우고 팀별활동, 그리고 단체 활동이 있습니다.</p> |
| <p>2017-1학기 수업</p>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communication & Plans 레드불, 스타벅스, 리들, 라이언에어 등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마케팅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웁니다. Ppt로 수업을 하시고, 팀별과제가 있습니다. 팀별과제와 기말고사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p> <p>Focus on Africa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웁니다. 팀별 발표와 기말고사를 봅니다.</p> |

다.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ISTC)

1학기 와 같이 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taxi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를 합니다.

Business News

1학기 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지 팀 과제가 그 주에 일어난 사건들 뉴스를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합니다. 이번학기에 다뤘던 토픽은 오바마의 정책분석, 트럼프의 행보, 나라별행복지수, 였습니다.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Clarife)

불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릴카톨릭 대학 본관에서 진행하는 불어수업을 따로 신청했습니다. 줄리에게 요청하면 수강할 수 있고, ISTC에서 듣는 수업과 병행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6개의 반이 있고, 그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레벨에 더 맞는 반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Focus on Asia

저번학기의 극동아시아 수업의 교수님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Ppt도 똑같은 거 사용하시고, 단지 이번에는 팀별 과제가 나라를 선택한 뒤 나라별 tv프로그램 만들기였습니다.

Focus on Europe

유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수업입니다. 저번학기의 visual communication교수님과 같은 교수님이신데, 이번에도 수업일정도 마음대로 변경하시고, 수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thics in communication

저번학기에는 보편적인 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철학가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에 철학가들의 사상을 대입시켜서 토론하고 배우는 수업입니다. 매 수업마다 기사를 인쇄해서 나누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발표로 사회적이슈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Media Theory

저번학기의 Communication theory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미디어

| | |
|---------|---|
| |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시고, 팀별 발표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
| 프로그램 운영 |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대부분 한국에서 메일을 주고 받았던 줄리라는 분이 교환학생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교내의 BDI라는 그룹이 있는데, 같이 파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과 친해지고, 또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날씨는 비교적 쌀쌀한 편이에요. 비도 자주 오고 흐린 날이 많고, 바람도 자주 불어요. 저는 2016/8/31에 도착해서 2017/6/1까지 릴에 지냈었는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여름은 그렇게 무덥지 않고,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도 1~2번정도 내렸고, 목도리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눈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추운 날씨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더위가 심하지 않아서 좋았어요.</p> |
| 안전 | <p><i>현지 안전 상황</i></p> <p>릴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높아서 그런지 활발하고 재밌어요. 물론 밤 늦게 다니거나 위험한 길로 다닌다면 위험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다닌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훔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거리 다닐 때, 항상 귀중품은 잘 지니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p> |
| 숙소 | <p><i>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AEU에 소속 되어 있는 "Charles Havez"(샤를아베)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지냈던 기숙사인 샤를아베 말고도 노트르담, 발랑명, 테이 야드, 생오머 등 가보았었는데, 시설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았어요. 단지 학교에서 30분정도 전철을 타고 이동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었을 뿐, 방 시설도 굉장히 신식이었고, 주방도 굉장히 크고 깔끔하고 안락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숙사와 다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았어요. 같은 기숙사를 썼던 친구들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간혹가다 파티나 여행, 운동</p> |

| | |
|-----------|---|
| | <p>등 같이 하는 모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디즈니랜드나 바닷가 가는 등 단체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주방이나 기숙사 페이스북에 올라오니 꾸준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p> <p>저는 화장실이 딸린 방인 37호에 묵었는데, 제 방만 유난히 작은 편이었어요. 프랑스의 특성에 맞게 “case by case”가 기숙사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모든 방들이 저와 같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같은 조건의 다른 친구 방에 들어가보니 제 방의 2배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주방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플로팅 혹은 aeu 측에 연락해서 방이나 기숙사자체를 변경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p> |
| <p>식사</p> |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v) 기타 ()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aeu에 있는 학교식당도 가끔 이용했고, 주로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먹었습니다. 프랑스가 식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오히려 만들어먹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더라고요.</p> <p>그리고 간혹 한식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릴의 한인마트는 2곳입니다. Asie Gambetta , wazemmes역 근처에 있는 New asie Nord Lille 이렇게 인데, wazemmes역에 있는 곳이 더 저렴해요. 그런데 와젼지역 자체가 조금 위험한 곳이어서 꼭 갈 때 소지품 조심하시고, 여자분은 꼭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기를 추천해드려요. 저도 모를 때에는 혼자 여러 번 가긴했지만, 동네 자체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싸움난 것도 보고, 제가 경험한 것들도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라면은 평균적으로 1유로 정도 합니다.</p> <p>그리고 aeu를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식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chicken self라는 곳을 많이 가실텐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해요. 가장 많이 가서 먹는 곳이고 저녁에도 열지만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한 두번 먹을 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던 학교 식당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Rue Meurein쪽에 loulou bar 옆에 입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곳에서는 주로 fish and chips와 cheese buger, salad 등 chicken self 식당보다 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이 곳이 가격대비 정말 괜찮았어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모든 식당들은 가격은 1끼당 3.25유로였고, 디저트 3개 선택하고(음료, 빵, 과자, 등), 메인디쉬 2개(고기, 버거, 감자튀김 등)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1회권을 사용해서 먹을 수도 있</p> |

| | |
|----|--|
| | 어요.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1년을 지낼 것이었기 때문에 passpass 24살 이하에게 나오는 2016/9-2017/6까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구매해서 다녔습니다. 한 달에 23유로로 기억하구요. 제가 끊은 교통권 말고 한달 정액권이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28유로였어요. transport가면 만들 수 있고, 그형플라스 역 지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들 당시 프랑스 계좌가 없어서 10개월치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했는데, 굳이 저처럼 할 필요없이 그냥 달마다 28유로씩 충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 방학 때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p>편도 90만원(직항, 아시아나)</p> <p>편도 67만원(경유, 알이탈리아)</p> | |
| Fees | - | |
| 보험료 | <p>istc에서 보험이 따로 있었는데, 215유로였습니다. 유럽권 학생이 아니면 필수로 가입해야했습니다.</p> <p>추가로 저는 삼성다이렉트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p> | |
| 숙소 | 434유로 (달마다) | |
| 식비 | - | |
| 교통비 | 23유로(달마다) | |
| 책값 | X | 주로 ppt로 수업이 이루어짐 |
| 기타1 | 약 52만원 | 비자, 각종 서류 발급비용 |
| 기타2 | 여행비용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미리 비자 신청과 서류준비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발급과정도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또 caf나 offi 등 프랑스 도착해서 해결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어공부와 세계 뉴스들을 틈틈이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나 한국적인 책갈피, 뱃지, 열쇠고리 등 준비해서 가져가면 꼭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릴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술관인 릴 미술관이 있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Palais des Beaux-Arts de Lille이라고 하고,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릴에서 조금 더 가서 루베쪽에 제가 좋아하는 la piscine이라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릴은 벨기에와의 국경에 가까운 도시이며, 영국과도 가까워 여행을 다니기에 편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교환학생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근교로 버스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릴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남부프랑스를 가거나 남부유럽을 갈 때에 릴 공항을 이용해서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근교로 여행가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영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 처음으로 교환학생 활동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ISTC라는 대학에 처음으로 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국제교육교류처와, ISTC와 연락도 많이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블로그를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겪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프랑스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행정처리가 정말 늦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을, 프랑스는 직접 서류 작성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그리고 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의 기다림을 가져야해요. 또한 그 기간 동안 잘 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한 달 기다린 후에도 잘못 처리되어, 다시 신청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마다 일 처리를 다르게 해서 같은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들 사이에서 늘 프랑스는 '싸데핑'(Case by case)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 친구들에게 물어보아도 다 똑같이 느리고, 결과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악명높은 프랑스 행정처리에서 잘 견뎌내려면 끝없는 인내심과, 늘 본인이 완벽하게, 일찍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둘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불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릴은 그 문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도시인 것 같아요. 물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영어를 쓰는 비율을 낮아지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초기 생활 때,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물론, 불어를 할 줄 안다면 훨씬 생활이 편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만약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불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k-pop, 그리고 k-drama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아이돌이나 드라마들을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접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한 문화자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길거리를 걷다가, 프랑스인이 한국인이거나 한국말로 말을 건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며 친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궁금해 하는 외국 친구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등 등 한국어로도 대답하기 민감하거나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뉴스나 인터넷을 보며,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더욱 이야기를 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곳에 교환학생하며 틈틈이 올린 것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ern0301.blog.m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
|  |  |
| <p>기숙사별 체육대회 했을 때, Charles Havez 팀끼리 모여서 찍은 사진</p> | <p>추석맞이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했던 음식파티</p> |



타 기숙사와 연합해서 했던 레이저 총 게임



그헝플라스 광장



크리스마스마켓 열릴 당시 그헝플라스 광장 (관람차 타고 찍은 사진)



기숙사 주방